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2월 ~ 3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브라질, 닭, 살모넬라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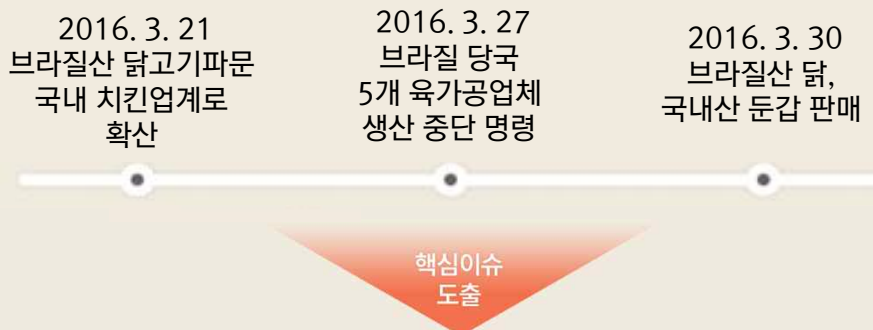
주요 키워드 :

브라질, 닭, 살모넬라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브라질, 오염 육류 유통 스캔들 파동”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브라질, 오염 육류 유통 스캔들 파동

지난 금요일 브라질 연방 요원들이 브라질 대형 식품 회사들의 작업현장을 급습했다. 이 대형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한 육류를 정상 제품으로 속여 공립학교에 납품하고,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닭고기를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을 허용받기 위해 검사관에게 뇌물을 건네는 등 불법 유통을 계획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거대 식품가공업체의 양대 산맥인 JBS와 BRF가 불순물 혼입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 가공식품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연방 검사관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수사관은 밝혔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검사관들이 위생 허가증을 조작했고 이들이 받은 뇌물은 브라질 민주주의 운동당(Brazilian Democratic Movement Party)의 대표인 미첼 티메르(Michel Temer)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한다. 사건에 연루된 검사관들은 살모넬라 균이 검출된 닭고기를 이태리로 수출하는 행위 또한 눈감아 줬다고 관계 당국은 밝혔다.

브라질 지역 식품가공 회사들의 불법 관행에는 닭고기 제품에 칠면소 소시지 라벨을 붙여 판매한 것, 대두 단백질로 칠면조 고기를 대체한 것, 발암 물질이 담긴 불순물이 섞인 육류 제품들을 유통한 것,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닭고기를 유통시킨 것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품들은 브라질 남부 파라나(Parana) 지방의 여러 학교에 유통되었다고 한다.

브라질 정치기구는 이미 다수의 뇌물 수수 사건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이번 오염 육류 스캔들은 쇠약한 국가 경제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분야인 브라질 식품 분야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국내에는 수입산 닭고기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브라질산 닭고기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런 브라질 육류 파동으로 브라질산 닭고기를 수입해왔던 주요 수입국들이 일제히 수입을 중단, 검역 강화를 발표하였으며,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 및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주요 수입 닭고기 공급처인 브라질산의 수입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영향으로 급등하던 닭고기 가격은 당분간 더 오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수입 육류 안전 문제에 대한 소비자 불안도 한층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